

# 광주석산고 '위버맨쉬', 온라인 책쓰기 결과물 선보여

광주석산고 '위버맨쉬' 소속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한 책쓰기 결과물인 '완벽한 학교(소설집)', '빛과 그림자(소논문집)', '토론에 취하다(토론집)'를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위버맨쉬'는 독일어로 '초월적 인간'을 의미하고, 광주석산고의 '위버맨쉬'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독서토론과 체험활동을 이어온 1~3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동아리다.

이번 책쓰기 결과물의 주인공들은 '위버맨쉬' 2학년 학생 15명이다.

'완벽한 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와의 갈등을 겪으며 학교가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해 성찰한 성장소설이다. '완벽한 학교'는 2학년 방주성, 이정철, 하효근 등 3명의 학생들이 공동 논의와 조연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빛과 그림자'는 의료, 법, 기술,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2학년 김민용, 박규형, 박정원, 탁현석 등 4명의 학생들이 각각 파트를 나눠 완성한 소논문 모음집이다.

10여년간 독서 토론·체험 활동 이어온 학생 동아리

'완벽한 학교', 학교 나아가 갈 방향 대한 성찰 성장소설

'빛과 그림자', 의료·법·기술·과학에 대한 소논문집

'토론에 취하다', 온라인 카페활동 '릴레이토론' 엮어

전문적·철학적인 대주제 두 개에 각자 자신이 자신 있는 진로와 관련된 분야를 연결한 소주제로 구성됐다. '빛과 그림자'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 각각의 생각과 의견이 담겨 있다.

'토론에 취하다'는 코로나 속 온라인 카페활동으로 이뤄진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진행된 '릴레이 토론'을 책으로 엮은 토론집이다.

'위버맨쉬'의 평소 활동과 이들이 기획했던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및 성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토론에 취하다'는 '위버맨쉬' 2학년 학생 15

명(공동저자 김민용 외 14인, 편집 정다호 외 7인)이 공동으로 완성했다.

특히 '위버맨쉬'는 학교 내 '위버맨쉬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고, 시내 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번 책쓰기 결과물을 선보였다. '위버맨쉬'는 앞으로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시대에도 공동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광주석산고 '위버맨쉬' 2학년 대표 김민용 학생은 "선배들의 꾸준한 활동을 이어 받은 우리 '위버맨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책쓰기 결과물을 완성해 자랑스럽다"며 "교육청 책쓰기 사업 및 광주석산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의 격려와 지원이 우수한 책쓰기 결과물로 이어진 것 같고, 창의융합적 사고역량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 순천대, '지능형 스마트농업 인재육성' 지역 스마트 농산업 시작

사업기간내 스마트 농업분야 석사급 연구 인력 배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지능형 스마트 농업 Grand ICT 연구센터가 순천대학교 대학원 내에 스마트농업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최근 공과대학 3호관에서 2020학년 2학기 1기 대학원생 23명을 대상으로 개강식 겸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하며 지능형 스마트 농업 인재 육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된 본 행사에는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기영 원장, 생명산업과학대학 배창후 학장이 참석하여 스마트농업전공 과정 개설에 따른 축하와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설된 스마트농업전공은 대

학원 1·2학기에 기초과정 및 전문과정, 3·4학기에는 심화과정인 프로젝트 수행 기반의(PBL) '스마트농업 이미지니어(IMAGINEER) 프로젝트 I, II' 과정을 이수하여 향후 지역 성장과 스마트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지능·창의·현장실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본 전공은 다학제적 과정을 취하고 있어 대학원생 본인의 학습 진로에 따라 농학·공학·이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최대 90%까지 장학금이 지원되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이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혁신적인 에듀테크(Edu-tech) 기술을 적용한 커넥티

드 랩(Connected Lab)을 운용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며 스마트농업 국내 최고의 교수진 및 관련 산업계와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학원 스마트농업전공 과정 개설과 관련하여 순천대학교 지능형 스마트농업 Grand ICT 여현 센터장(정보통신공학 전공 교수)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지능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대학의 스마트농업 전공에서는 시장수요 맞춤형 농업 분야 지능화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지자체·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석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스마트농업의 지능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능형 혁신 기술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스마트농업 ICT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순천대학교 Grand ICT 연구센터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고 지역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순천대학교 대학원의 스마트농업전공 과정에 도전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무안교육지원청, '나는 자랑스런 무안의 아이'



16일에는 행복초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전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학교 선생님과 팀티칭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독서·토론에 필요한 교재와 독서·토론 전문 강사를 지원하였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재를 미리 읽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한편, 강사와 협력하여 차시별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무안행복초 우OO 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함께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무안의 아이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16일부터 관내 신철학교인 무안행복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사랑하기'를 주제로 찾아가는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안교육지원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신철학교인 무안행복초, 무안행복중학교 학생들의 독서·토론·글쓰기 능력 향상 및 학생 자신이 사는 고장인 무안에 대한 애郷심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 나주교육지원청, Wee클래스의 따뜻한 손길

신규 배치된 관내 4교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2020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신규 배치된 관내 4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은 Wee클래스 운영 내실화 및 학생상담 전문성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며, 컨설팅의 전 과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Wee클래스 운영 현황과 상담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Wee클래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Wee클래스 운영 측면에서 학교급별 특화 Wee클래스 프로그램 발굴, 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관련 기관 간의 연계방안 검토 등을 통해 Wee프로젝트 활성화 방법을 논의하였다.

